

고2 1학기 중간고사 [생활과 윤리]

정리 by. 민주
2012년도 천재교육 교과서

생활과 윤리의 의의

이. 현대 생활과 실천 윤리

1. 실천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윤리학

도덕: 사회의 승인을 통해 구속력을 갖는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규범과 가치의 총체

철학은 이론 철학과 실천 철학으로 구분

윤리학은 실천 철학

윤리학은 인간의 행위 중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에 대해 물음, 규범과 도덕의 본질을 연구하고 양자의 관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음

윤리학은 이론적 윤리학(생태 윤리, 생명 윤리, 정보 윤리 등이 있으며 2. 실천 윤리의 의미와 필요성에서 다룸)과 실천적 윤리학(응용 윤리학)으로 구분

이론적 윤리학

의무론적 윤리론: 칸트, 동기, 행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요구되는 의무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공리주의적 윤리론: 벤담과 밀, 결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행위를 결정하는 주요 동기로 쾌락과 고통을 들고, 행위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쾌락이나 행복을 행위의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견해

덕 윤리론: 길리건과 나딩스, 행위자의 덕, 행위자에 초점을 두어 도덕적 행동이 행위자의 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견해

아리스토텔레스

에토스(ethos, ethics가 나온 단어): 습관, 풍습, 관습을 의미, 통찰과 숙고에 따라 행위가 성격이나 성품으로 내면화된 것을 의미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초의 윤리학 책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

도덕의 구체적인 규범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을 도덕의 상대성이라 함

2. 실천 윤리의 의미와 필요성

윤리학은 보편적인 윤리를 특정한 생활 영역과 행동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하나의 특정한 구체적인 윤리학, 즉 실천 윤리학이 됨

윤리학은 현실적인 인간 삶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명하며 삶의 변화를 이끄는 방법을 탐구하는 실천 학문임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과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남

환경 윤리 및 생태 윤리: 오존 구멍의 등장, 온실 효과, 해수면의 상승, 사막화 등으로 인해 등장, 기후 변화 윤리라고도 함

생명 윤리: 유전자 조작과 재조합, 배아 줄기세포의 활용, 복제 기술의 등장, 동물 복제와 인간 복제의 가능성 제기 등 등장, 동물 윤리라고도 함

정보 윤리 및 사이버 윤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불건전한 내용의 정보 공급, 온라인 사기, 해킹, 악성 댓글, 정보 검열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상충,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중 자아 문제 등으로 등장, 인터넷 윤리라고도 함

과학 기술이 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윤리 문제 제기 없이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없음

요나스: 과학 기술의 발달과 그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적 숙고의 차이를 윤리적 공백으로 표현, 책임을 중시

현대 윤리학

실천 윤리 분야의 강세가 특징

독자적인 연구 영역 확보

인접 학문과의 협력이 필수적: 여러 관련 학문과의 상호 협력 필요

윤리학 내부보다는 윤리학 바깥에서 필요성이 제기됨

변화하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하여 숙고하고 반성해야 함

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존재임

제도화된 사회적 행위의 형식은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억압하기도 함

집단이나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그 본질상 개인과 비교하면 이기주의적 성향을 갖기 쉬움

개인 윤리적 관점

개인의 양심이나 윤리 의식 등 개인의 도덕성에 중점을 둬 개인적인 양심과 자선 또는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사회 윤리적 관점

사회의 구조, 제도, 정책의 도덕성에 중점을 두어 행위의 결

과에 대한 책임도 개인보다는 구조나 제도에서 찾고자 함
 사회적 도덕 문제는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도덕성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함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임

니부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 내의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한다고 주장
 집단의 영향 아래에서도 개인의 도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개인적 윤리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사회적 윤리와의 확립을 중요하게 여겨 강조함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향해야 함

생활과 윤리의 의의

02. 현대 생활과 전통 윤리

1. 전통 윤리의 의미와 중요성

전통

일반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와서 현재의 생활 문화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양식이나 태도 등을 가리킴
 고유성이나 주체성을 전제 조건으로 삼음
 고정불변의 것은 아님
 시간적인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스스로 반성하거나 타 문화와의 교류와 융합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로도 발전
 현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

전통 윤리

우리의 고유 문화를 중심으로 이웃 문화와의 접촉과 갈등,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거쳐 형성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 역사적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발달에 긴밀히 관계하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옴
 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전통 윤리에 관한 탐구는 윤리의 역사와 지금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됨

첨단 정보화 시대의 현대 문명은 물질적 성장과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었으나 인간의 지나친 욕망과 과학 지상주의의 범람 등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문제

를 낳게 됨

인간의 도리와 사람답게 살기를 부단히 강조하는 동양의 도덕적 전통은 정신적, 도덕적 위기로 일컬어지는 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을 것

인간 관계의 유대를 강조하는 오륜의 윤리와 상부상조의 전통에서 드러나는 공동체 예절은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정감과 신뢰의 밑바탕이 되고 있음

오륜

부자유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친함이 있음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음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음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음
 봉우유신: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음

전통 윤리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 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현대 사회에는 적용하기 어렵거나 비판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2. 전통 윤리의 본질과 기본 이론

원시 신앙

초기 농촌 공동체라는 배경에서 형성
 하늘이나 우주를 비롯한 자연에 대한 숭배, 영혼 불멸 사상에 근거한 혼령 숭배, 인간과 초월적 영역의 매개자인 무당에게 의지하는 무속 등 다양한 원시 신앙의 형태가 있음
 원시 신앙의 형태에는 하늘을 경외하는 경천사상을 기초로 초월적인 존재들과 교통하여 이들을 닮아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더 나아가 이들로 부터 도움을 받아 현실에서 가장 근원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종교와 윤리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것이었음

유교와 불교, 도교는 우리의 오랜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융합되고 발전하여 현재까지도 우리 삶의 가치관이나 사고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통 사상임

유교

자신을 수양하고 타인을 편안하게 한다는 수기안인의 윤리적 규범을 갖고 있으며, 이는 삼국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교육의 근간이 됨
 효제충신(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진심을 다하는 마음, 친구 사이의 믿음을 일컬음) 등의 덕목은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 자리하게 됨

서민들의 의식 구조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까지 큰 영향
 친친(가족부터 사랑함)을 기초로 한 사회적 관계를 중시함
 성리학 등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두드러진 발전을 이루어 이황

과 이이 같은 인물과,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도 배출

불교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의 전통 문화에 많은 발자취를 남김
어느 것도 고정된 실체성을 지니지 못함을 깨달음으로써 모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해탈을 하기를 강조
인연과 자비 사상이 있어 우리 내면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주
의 만물이 화해하고 소통하는 이상적 경지를 열어 놓음
원효: 화해와 회통을 강조하는 화쟁 사상과 원융회통(어느 특정한 교리나 학설을 고집하지 않는 포용성을 강조) 사상으로, 의천과 지눌의 교관겸수, 그리고 정혜쌍수와 맥을 같이하는 대통합의 논리로 한국 불교 윤리의 전형이 됨
의천: 교관겸수(교종 중심으로, 불교의 교리인 교와 수행인 관을 겸하여 닦음)
지눌: 정혜쌍수(선종 중심으로, 불교 수행의 요체인 정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인 혜를 겸하여 닦음)

도교

우리의 전통 윤리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침
무위자연(기초로 삼는 신선 사상이나 양생(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여 자신의 생명을 잘 유지함)의 불로장생설은 무병과 장수를 염원하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
풍수지리설이나 도참설(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거나 예언하는 일)도 민간 신앙으로 널리 확산됨
윤리 의식의 선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의술이나 약술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와 관련된 부차적인 의식과 부적 등이 독특한 도교 문화를 형성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군자의 나라라고 불렸으며, 동방예의지국이라고도 불렸음
최치원은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고 하였음

3. 전통 윤리의 우주관과 인간관

우주관

유교: 하늘을 포함한 자연을 일반적으로 도덕적 원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본성이 이미 하늘에 내재해 있다고 봄, 인간이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본연의 성품을 그대로 보존하여 함양하면 이상적인 인간상인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함
불교: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다고 여김, 자비 역시 생명 중심적인 사랑
도교: 하늘이라고 할 때의 천을 인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연법칙으로 그쳐 자연은 자연일 뿐이라고 이해, 땅에는 인간의 몸처럼 기운이 흐르고 인간의 몸에 기가 모이는 혈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그러한 지점인 명당이 있다는 풍수지리

사상은 독특한 측면이 있음

동양 사상의 자연관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학적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도덕 주체로서의 자각과 생명 존중, 그리고 자연과 나는 하나라는 유기체적인 이해와 접근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음

인간관

유교: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인의예지의 도덕적 본성을 사회하는 인간 관계에서 실현하고 완성해야 하는 존재, 도덕적 본성은 자신의 진솔한 내면 성찰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과 가장 가깝고 중요한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타자로 확대되는 점진적인 논리에 의해 실천, 군자라 불리는 사람은 끊임 없는 수양을 쌓아 이러한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는 사람
불교: 자신의 존재 안에 들어 있는 연기성을 깨달아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을 중시, 우리가 가지는 마음과 의식이 환상이라고 봄, 우리가 가진 마음과 의식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탐욕이고 집착이며, 이러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함, 외부 사물에 이끌려 일어나는 마음과 의식을 가다듬고 모든 상념이 가라앉은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는 참선의 수행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함,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중생을 가르쳐 자비를 실현하는 사람
도교: 인간은 자연과 구분되지 않으며, 따라서 유교의 인간관처럼 사회 규범적인 측면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지 않음, 인간은 인위적인 예의나 도덕에 의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져 무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이해, 사회적 규범을 초월하여 자연과 우주와 하나가 되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인간의 삶이라고 이해, 지인이나 신선은 이러한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전통 윤리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나,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다운 삶을 구현하고자 했던 고민과 사색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

4. 전통 윤리의 현대적 계승

전통 윤리의 위상은 다소 복잡한데, 과거에만 의미 있게 통용되었을 뿐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특수성을 강조, 혹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중시해야 한다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열린 시각에서 검토해 보고, 계승하여야 할 전통 윤리의 긍정적인 측면을 현실 생활에서 실천해야 함

전통 윤리는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는 전통 윤리의 특수성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사는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특면에서 정리될 수

있음

전통 윤리는 현재에 계승될 가능성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전통 윤리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비판적 이해와 함께 보편적인 측면에 관한 다양한 평가 및 현대적 계승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감 있게 수행해 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함

전통 가치들은 시대와 문화라는 측면에서 특수성을 띠지만,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인간다움이나 초월자(유교의 군자, 불교의 보살, 도교의 신선과 지인 등)에 대한 경외 등 인류라는 동질성의 측면에서 보편성도 지님

전통 윤리를 현대 사회의 구조와 문화에 맞게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통을 보존하고 함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하여야 함

생활과 윤리의 의의

03.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

1. 일상적인 삶에서의 도덕적 물음들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는 사실, 감정, 행위의 결과, 행위 규칙, 권위, 그리고 양심 등이 사용됨

경험적 사실을 들어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음

감정(동기가 되기도 함)이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된다면 그 감정 속에 어떤 가치 판단이 감추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어떤 행위가 가져올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에 호소하여 그 행위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행위의 정당성을 찾는 방법도 있는데, 결과의 유용성에 따른 행위의 도덕적 정당화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음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도덕의 특정 규범에 근거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근거가 되는 규범의 정당성과 보편적 합의의 가능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

사회에서 인정되는 권위 또는 권위자에 따르거나,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의거해서 행위의 정당성을 찾고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 역시 정당화의 근거에 대한 이성적이며 비판적인 사고가 전제되어야 함

행위의 정당성을 찾는 것을 윤리적 탐구라고 하며, 윤리적 탐구는 윤리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짐

2. 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까?

인간은 묻는 존재임

소크라테스는 숙고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였음

행위에 대한 판단

도덕적 의무 판단(보편적인 인간의 도덕 판단):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명령되는, 예를 들어 너는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 는 판단

도덕적 가치 판단: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좋거나 그렇지 않다는, 예를 들어 철수는 친구를 속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라는 판단

도덕 외적인 가치 판단(도덕의 범주가 아님): 도덕적인 영역에 속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예를 들어 홍길동은 훌륭한 선수이다, 라는 판단

기술적 판단(도덕의 범주가 아님):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예를 들어 영희는 어머니를 속여서 혼났다, 라는 판단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함
의사소통은 인간만의 특징이며, 의사소통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음

합리적 의사소통의 조건

자신의 의견을 방해받지 않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함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함(역지사지, 논어에서 말하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대학에서 강조하는 혈구지도, 추기급인, 등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뜻이며, 이런 주장은 자신의 진심(忠)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라(恕)는 충서 사상으로 집약됨)

3. 인격 도야와 수신

인격은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각 개인이 단지 인간이라는 중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니는 고유성과 가치를 의미하며, 우리가 실천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 추구해야 할 도덕적 성품을 의미함

서양에서의 인격

이성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실체

이성, 개별성, 실체성의 세 요소는 인격 개념의 핵심 요소로 제시되며, 여기에 사랑이나 의무, 도덕성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음

활동적인 주체성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 강조됨

자립적인 정신적 존재이며,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존재이

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의 특성이 됨

동양에서의 인격

인간으로서의 표준과 자격을 뜻함

개인으로서의 자기만의 특징을 포괄하는 개념

인격을 도덕적인 자질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격 완성이란 자기 반성과 훈련을 통해 도덕적으로 여러 사람의 준경을 받을 수 있는 품성을 갖추게 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런 상태는 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봄

어느 한 측면에서 인격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이상적인 인간은 거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양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공통점이 있으며, 유교, 불교, 도교 모두 각자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이루고자 나름의 수양을 강조함

유교에서의 인격

덕행을 닦아 인과 의를 지키며 겸손하게 행동을 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군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역경의 말처럼, 수양을 통해 인격을 수행할 수 있는 군자에서 인격의 표준을 찾을 수 있음

신독(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감)과 주일무적(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흐트러짐이 없음을 두지 않음)을 요체로 하는 거경(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흐트러짐이 없이 하고 몸가짐을 삼가 덕성을 함양함)의 수양 방법을 통해 도덕적 인간이 되고자 함

불교에서의 인격

인생에서의 고통의 원인이 탐욕과 집착에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

좌선이나 화두(참선을 시작하는 사람의 깨달음을 돕고자 사용하는 간결하고도 역설적인 문구나 물음)를 통찰하는 것을 통해 세상의 본 모습을 통관하는 깨달은 사람이 되고자 함

도교에서의 인격

무위와 무욕을 강조

좌망(조용히 앉아서 잡념을 버리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감), 심재(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는 것) 혹은 허심(마음을 정화하여 본래의 마음을 되찾는 것)을 통해 대자연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함

생명, 성 윤리

이. 출생과 윤리

1. 출생의 윤리적 의미와 효도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모성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교를 강조하여 임신 기간에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구분함

현대 사회에 와서는 자연 임신 못지 않게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임신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인위적인 개입이 발생함

이에 따라 비배우자 수정의 문제, 생식 세포의 매매, 성 감별 및 선별의 문제, 대리모, 인공 유산의 만연 등의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 제도의 변화까지 초래함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인간이란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배아 및 태아의 생명권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생명의 시작 기준점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짐

출생을 통해 개인의 존재는 시작되고, 가족을 통해 사회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충원하여 존속할 수 있게 됨

아이를 낳는 부모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 아이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됨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은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시되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절대적인 성격을 갖게 됨

자녀의 부모에 대한 책임, 즉 효 역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은 같음

예로 오늘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삼년상(공자는 삼년상을 행하는 이유를 자식이 세 살이 되어야 비로소 부모의 품을 떠나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음)을 지내지는 않지만, 부모에 대한 효의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음

생명의 탄생은 효의 근본 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효의 근본 정신은 생명의 연원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심으로 봉양하는 것이므로, 효는 사람됨의 근본이 됨
하지만 역시, 효의 발현은 시대에 따라 달라짐

2. 생명의 의미와 가치

생명은 물질이 아니지만, 물질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님
모든 생명은 자연으로부터 나왔으며,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운명적 사실과 모든 생명은 서로 무관하게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구성함

생명의 개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며, 주로 목숨을 의미함
과학적 정의로는 생리적 정의(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리 작용을 지닌 대상을 생명체로 규정), 대사적 정의(신진 대사를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으로 간주), 유전적 정의(한 개체가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들어 내는 특성이 있는, 즉 생식 작용에 의해 생명을 규정), 생화학적(생명을 자유 에너지의 출입이 가능한 열린 체계로 보고, 특정한 물리적 조건의 형성에 의해 낮은 엔트로피, 즉 높은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특성을 생명의 본질로 규정) 정의, 열역학적 정의로 생명

현상을 설명하지만 그 자체로 만족할 수는 없음

생명은 일회적이며, 우리가 정신, 영혼, 이성 등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음

생명의 가치는 효용 가치나 쾌락 가치와는 다른 의미가 있음

슈바이처

살려는 의지, 즉 생명에 대한 경외를 주장

생명 긍정(생명을 유지, 지속시키는 것)과 생명 부정(생명을 훼손하고 죽이는 것)을 구분하고 생명 부정이 도덕적이지는 못하지만 생명 긍정, 더 나아가 세계 긍정을 위해서라면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해치는 생명 부정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이것 역시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도덕적인 것이 되지 않는 않으며, 그래서 윤리란 살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라고 주장

3. 낙태와 생명 복제에 대한 윤리적 관점

낙태란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없는 태아가 모태에서 분리되는 것

낙태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은 선택 옹호주의(Pro-choice)와 생명 옹호주의(Pro-life)로 구분됨

선택 옹호주의

소유권 논거: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권리를 가짐

생산 논거: 여성은 태아를 생산하기 때문에 태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자율 논거: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에 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짐

평등권 논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낙태에 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정당방위 논거: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방위의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에서는 낙태할 권리를 가짐

생명 옹호주의

존엄성 논거: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함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함

잠재성 논거: 태아는 임신 순간부터 성인으로 발달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잠재성 논거가 먼저 확립되어야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가 확립될 수 있음

생명 윤리의 4원칙

자율성 존중 원칙: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악행 금지 원칙: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선행 원칙: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함

정의 원칙: 의료 자원 및 서비스의 분배적 정의를 지켜야 함

생명 공학의 발전에 따라 줄기 세포를 얻기 위한 배아 세포 실험도 도덕적 찬반 논쟁이 일어남

배아 세포 실험 논쟁

태어나 배아를 인간으로 보아야 하느냐

인간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보느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문제

존엄성

소극적으로는 배아 세포가 외부적인 목적을 위해 해쳐져서는 안 된다는 살해 금지의 의미

적극적으로는 생존할 수 있는 권리인 생명권을 갖는다는 의미

인간 배아의 도덕적인 지위에 관한 견해

인간 배아는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

인간 배아 세포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이므로 얼마든지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인간 배아는 잠재적인 인간이지만 제한된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두 극단의 절충안의 성격을 갖는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함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해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는 논거 중의 구성원 논증: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는 배아 세포가 도

덕적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짐

연속성 논증: 인간의 발달 과정은 결코 선명한 경계선이 없는 연속적인 과정이므로 배아 세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짐

동일성 논증: 배아 세포가 수정 후부터 도덕적으로 중요하면 서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속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며, 이 속성을 통해 배아 세포로부터 나중에 성장할 존재와 배아 세포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동일함

잠재성 논증: 배아가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짐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논거 역시 논리적 약점이 있음

그럼에도 도덕적 논리에서는 배아 세포를 경제적, 의학적 효용 가치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배아 세포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이 져야 하는 책임의 대상에 포함됨

생명, 성 윤리

02. 신체와 윤리

1. 신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신체와 정신의 관계, 신체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의 변화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윤리적 사고와 판단이 필요해짐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외모 지상주의 또는 루키즘이라고 함

인체 실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과학의 진보와 의학적인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 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함

결과론적 사고로는 옳지 못한 행위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음

실험 과정에 대한 윤리적 평가가 결과로서 얻어지는 이익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됨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인간의 자율적인 자기 결정 능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인간 존엄성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함

뉘른베르크 강령

인체 실험 대상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 실험 대상이 되는 인간은 결정을 내리는 데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지녀야 함

실험 대상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 필요
보상이 부족할 때는 착취의 문제가, 보상이 과도할 때는 보상의 유혹 때문에 자율성의 훼손이 발생

실험 윤리에서는 연구자와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

2. 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와 생명 윤리의 방향

장기 이식은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삶을 개선할 수 있음

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는 크게 장기의 공급과 분배의 문제로 나누어짐

장기 적출의 문제는 죽음의 판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뇌사(뇌기능의 정지로 10시간 내에 심폐사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직 사망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회생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임) 상태의 장기 기증자의 생명 유지 장치의 작동을 중지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한다면 장기 적출을 할 수 없음

장기 기증자가 살아 있을 때 동의했거나, 기증자의 사전 동의와 유가족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장기 적출을 함

장기 적출의 동의 유형

동의

거부

문의: 사망자의 동의가 없을 때 항상 유족에게 의무적으로 장기 기증의 의사를 묻도록 정하는 경우

묵시적 동의

공공기관 설문: 공공 기관에서 신분증이나 운전 면허증 발급 시 시민에게 뇌사 상태에 빠질 경우 장기 기증 여부에 대해 묻는 경우

살아 있는 기증자의 장기를 이용하는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이식 받을 사람의 절박함이 클수록

기증자의 피해가 작을수록

기증자의 선택이 자율적일수록

이럴수록 윤리적 허용 가능성이 더욱 커짐

장기 기증 우선권

조직형이 완전히 일치하는 환자

기대된 시간

경제적인 고려: 개인적, 사회적 기여 여부

의학적 유용성: 회생 가능성

이외에도 기회균등의 원칙이 고려 되어야 함

비슷한 정도의 절박함과 성공 가능성을 가진 젊은 환자와 노인 환자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

장기를 분배하는 기준에 대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

생명, 성 윤리

03. 성과 사랑의 윤리

1. 성과 사랑의 본질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생기며 동시에 성적 관심과 욕망 또한 증가함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은 성 염색체의 작용에 따라 신체 구조에 드러난 외적 차이를 바탕으로 구분되는 성별

사회 문화적 의미의 성(gender)은 사회 안에서 형성되고 습득된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의미, 즉 후천적인 삶
 성 역할의 사회화는 출생할 때부터 한 사회 내에서 남성과 여성에 부여된 가치관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가 기대하는 성 역할과 규범을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함

성적 활동

생식적 가치: 임신과 출산

쾌락의 가치: 성적 쾌락, 쾌락의 역설을 통해 보면 절제가 없는 쾌락의 추구는 오히려 더 큰 불쾌감과 고통을 일으키므로 성적 쾌락에도 절제가 필요함

인격적 가치: 사랑하는 사람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의미

사랑하는 감정, 즉 애정은 인간의 근원적인 감정으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해 줌

보호: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돌보고 그가 성장하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

책임: 상대의 요구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

존경: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해: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알고 그를 깊이 이해하는 것

사랑과 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성적 욕망이 항상 사랑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사랑과 무관하게 생리적인 욕구에서 성적 욕망이 생기기도 함

성적 욕망과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됨

도덕적인 성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전제로 함

사랑과 절제의 덕이 겸비될 때, 성은 그 고유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는 좋은 성이 될 수 있음

2. 현대 사회의 성 문제들

근래까지 우리 사회는 성을 비밀스러운 것으로 여겨 금기시함 서구의 개방적인 성 문화가 유입되면서 성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과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음

급속한 성 의식의 변화는 성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함

성의 상품화

인간의 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인간의 성이 지닌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변질시킴

성적 소수자 문제

성적 소수자란 인간 사회에서 다수를 구성하는 이성애자와는 다른 성적 성향을 지닌 사람을 뜻하며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이 이에 속함

우리 사회의 성적 소수자는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불합리하게 대우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음

다수와 다른 성적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임

국가 인권 위원회법에서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3. 성적 자기 결정권과 책임

인간은 자유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삶의 중요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님

이러한 자기 결정권은 천부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동시에 욕구임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 받거나 지배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의미함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소중함

개인의 성 주체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성적인 행동이든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옳지 않음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기 결정권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함

책임 있는 태도가 전제되지 않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 사려 깊지 않은 성적 행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준비되지 않은 인심과 낙태 등 생명 윤리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성적인 방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려면 자기 성찰과 숙고를 해야 함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임

생명, 성 윤리

04. 죽음과 윤리

1. 죽음의 윤리적 의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

에피쿠로스

우리는 살아 있거나 죽어 있거나 둘 중의 한 상태에 있으며,

살아 있는 동안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더는 우리의 의식이 살아 활동할 수 없다고 주장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공자

삶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반문함

하이데거

인간을 죽을 존재로 규정하면서도, 동물은 자신이 죽는 줄 모르면서 죽지만,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 죽어 간다는 점에서 인간과 동물을 차별화하기도 함

죽음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같음

역설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가치가 더욱 두드러짐

동양에서의 죽음

불교: 죽음을 고통의 원인이지만 동시에 이 현실의 고통을 떠나는 것이라고 여기

도교: 자연을 따르는 수련을 통해서 불로장생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죽은 이의 처지에서 보면 더 나은 곳으로 갔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유교: 죽음을 자연의 과정이라 여기면서도 애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과 관련된 전통 윤리는 주로 이러한 유교의 영향을 받음

전통 윤리에서는 한 사람의 마지막을 예우하는 상례와 조상을 추모하는 제례를 엄격한 예법에 따라 실시함

상례: 사망한 사람이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준수해야 할 예가 다름

제례: 어떤 분의 어떤 제사인지에 따라 지켜야 할 예가 다름

현대 사회에서는 상례, 제례 등 전통 의례가 유실되고, 번잡하다는 선입견 때문에 전통적인 의례 문화의 기본 정신과 그 절차를 도외시키고 있음

돌아가신 조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삶과 그 의미를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임

2. 사형 제도에 관한 윤리적 논쟁

사형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인 면에서 중요한 문제임

사형 제도에 관한 견해는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인간의 고귀한 생명에 대한 처벌이기 때

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반대론으로 구분 됨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므로 생명형이라고 하며, 형벌 가운데 가장 심하다는 의미에서 극형이라고도 함

근대 이후 인권의 핵심을 생명권에 두고 사형 제도의 제한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됨

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사형 제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형 적용 기준이 차별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오판에 의한 사형과 사형 제도의 비인간성은 심각한 문제임

형벌에는 반드시 응보의 개념이 필요하며 사형을 받을 만한 흉악 범죄나 테러범이 존재하는 한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지지 받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형 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인권 보호, 사법 정의, 사회 방위, 비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짐

사형 제도 유지의 논거

응보적 관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자기의 생명을 박탈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함

범죄 예방적 관점: 흉악범 등 중대 범죄에 대하여 이를 위협하지 않으면 법익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형 제도는 필요악임

사회 방위론적 관점: 사회 방위를 위해서는 극히 유해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필요가 있음

시기 창조론의 관점: 사형 제도의 존재 문제를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보아 사형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폐지를 유보하는 견해로, 공동선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유지해야 함

사형 제도 폐지의 논거

인도주의적 관점: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함

응보적 관점에 대한 비판: 사형 제도는 피해자를 대신한 응보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형벌의 합리적 목표인 교화나 개선과 무관함. 인간은 누구나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응보 욕구는 적극적으로 선이 악을 이김으로써 충족되도록 해야 함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 한 사형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정의에 반함

사형은 일반 사회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위협적 효과를 가지지 못함

사형은 정치적 반대 세력, 소수 민족, 종족, 종교 및 소외 집단에 대한 탄압 도구로 악용됨

3. 뇌사와 안락사에 관한 논쟁

생명의 시작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 못지않게 생명의 끝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도 많이 제기됨

뇌사의 판정 문제와 식물인간의 상태, 죽임과 죽게 내버려 둠의 문제, 생명 유지 장치의 지속 여부, 자발적, 비자발적, 소극적, 적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사의 문제 등이 그것임

뇌사는 전통적인 죽음의 판정 기준이었던 심폐사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발전의 획을 그으면서 동시에 의학적, 사회적 목적에 잘 들어맞도록 기여해 옴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의식과 정신 활동을 지지해 주는 능력을 상실했을 때에도 개체의 신체 기능을 계속해서 통합시킬 수 있는 지속적 식물 상태(대뇌피질에 손상을 입어 식물처럼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뇌간에 의해 호흡, 혈액 순환, 체온 유지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만 하는 상태) 또는 폐쇄 증후군(의식은 있지만 전신 마비 때문에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의 환자는 여전히 살아 있는 상태에 있음

따라서 뇌의 전 기능의 상실만이 죽음 판정의 충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전통적인 심장사와 뇌사 지지사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은 장기 이식의 필요성과 수요가 높아짐으로 인해 윤리적, 법적 문제의 해명이 절실히 요청되면서 심해지고 있음

헬싱키 선언

헬싱키에서 채택한 의사 윤리 선언임

환자의 건강을 나의 첫째가는 관심사로 여길 것이 다라는 말로 의사의 의무를 촉구함

의료 윤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환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를 약화시킬지도 모를 치료법을 시술할 때, 의사는 오직 환자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함

죽을 권리를 위한 협회의 도쿄 성명

인간은 모두 자신의 삶과 죽음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

환자의 자유로운 삶의 의지는 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함

환자의 요구는 합법적인 기록을 통해야 함

안락사는 어원적으로 보면 좋은, 행복한,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함

안락사 의미의 변화는 20세기 초에 일어났는데, 우선 안락사는 죽음을 도와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나치의 안락사 정책에서처럼 삶의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됨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환자가 원하는 상황에서 하는 경우), 반자발적(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 비자발적(환자의 의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으로 구분하고, 죽음을 앞당기는 방법에 따라 적극적, 소극적으로 구분함

의사 조력 자살은 죽을 수 있는 장치를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사가 도와주는 행위이기에 본질적으로 자살에 해당하지만, 안락사는 행위자와 환자가 구분되므로 자살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것

적극적 안락사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환자 자신이 지속적으로 안락사를 원해야 함

참기 어려운 고통의 상태가 지속되어야 함

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해야 함

안락사 결정이 올바른지를 미리 환자의 가족과 동료 의사와 의논해야 함

안락사 시행의 모든 상황과 조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일반적으로 안락사의 찬반 논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그리고 생명 존중의 원칙이 관련되어 있음

안락사의 허용 기준을 확일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요청됨